

# 중국 유서의 편찬과 분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mpilation and Classification of China's Yuseo

한 미 경 (Han, Mi-Kyung)\*

## ◁ 목 차 ▷

1. 서론	3. 유서의 편찬과 특징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1 유서의 편찬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2 유서 편찬의 특징
1.3 선행연구	4. 유서의 분류 분석
2. 연구의 배경	4.1 역사적 분류의 분석
2.1 유서의 명칭과 기능	4.2 현대적 분류의 분석
2.2 유서의 시초와 수량	5. 결론
2.3 유서의 백과사전과 총서와의 차이	<참고문헌>

## < 초 록 >

유서는 각종 전적 중의 관련 자료를 집록하고 유별 또는 자별 등으로 편집한 전통적 참고정보원이다. 이 연구는 중국의 유서를 대상으로 편찬과 분류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삼국시대에 편찬된 최초의 유서 『황람(皇覽)』 이래 청대까지의 시대별 유서의 편찬과 편찬의 특징을 살폈다.

둘째, 유서의 분류의 경우 우선 역사적 분류로서 시대별 분류와 분류법별 분류와 유별 분류를 분석하였다. 현대적 분류의 경우 편집과 편찬에 의한 분류와 내용 배열방식에 따른 분류 그리고 수록범위에 따른 분류 외에 현대의 문헌분류법에 의한 분류를 살폈다.

한국과 일본의 문헌분류법의 경우 유서를 백과사전과 함께 분류하고 있어 별도의 분류 항목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대에 있어서의 유서의 참고정보원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기술하였다.

要語: 백과사전, 유서, 중국, 정보원, 참고정보원, 총서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bib4u@kgu.ac.kr)

접수일: 2014년 9월 12일 최초심사일: 2014년 9월 17일 심사완료일: 2014년 9월 27일

<ABSTRACT>

Yuseo is a traditional reference information resource which is compiled with concerned data of a various books and edited by type or character of such data.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studying compilation and classification of China's Yuseo.

First, Yuseo's compilation and characteristics of compilation by period, which covers times from the compilation of the first Yuseo called *Hwangram* until Qing Dynasty, were examined.

Second, as for compilation of Yuseo, classification by period, classification by classification method, and classification by types were analyzed as historical classification.

With regard to modern classification, this study included classification by modern library classification in addition to classification by editing and compilation, classification by content arrangement, and classification by scope.

This study proposed establishment of a separate classification item in that library classification of Korea and Japan classifies Yuseo as part of encyclopedia in their library classifications. And this study also described the value and importance of Yuseo as the reference information source in modern times.

Key words: encyclopedia, Leishu, Yuseo, China, information resources, reference resources, Congshu, serie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유서(類書)란 일종의 지식정보적 성격의 전통적 정보원이다. 처음에는 봉건제왕의 치국책략 검색용과 선비의 과거 준비용으로 제공되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료의 보존 기능과 검색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유서의 명칭은 『송문총목(崇文總目)』이 ‘유서류(類書類)’를 자목으로 최초로 사용하고, 같은 시기에 북송 구양순 등이 『신당서 예문지(新唐書 藝文志)』를 편찬할 때 자부(子部)에 ‘유서류’를 두면서 오늘날까지 사용하게 된 것이다.

최고의 유서는 삼국시대 조위(曹魏) 원년(220)의 『황람(皇覽)』으로 이후 중국 역사상 출판된 유서는 매우 방대하고 다양하다. 중국의 문헌의 분류와 목록은 전한(前漢, BC202-AD8)의 유향(劉向)과 유희(劉歆) 부자가 군서를 교감하여 편찬한 『별록(別錄)』과 『칠략(七略)』에서 시작되었으나 유서에 대한 분류는 서진(西晉) 순욱(荀勗)의 『중경신부(中經新簿)』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이 연구는 현대에도 전통적 자료의 보존과 검색에 유용한 참고정보원인 중국 유서에 대한 편찬과 분류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삼국시대에서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유서의 편찬을 살피고 시대별 유서 편찬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서에 대한 역사적 분류를 고찰하고 현대적 분류를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연구는 중국의 유서 편찬과 분류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역사연구법과 문헌연구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 중국의 유서는 고대 유서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시대적 범위는 유서가 처음 등장한 삼국시대부터 청대까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에서 고대에 편찬된 유서의 총수는 학자마다 적게는 6백여종에서 1천종에 이르기까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유서에 대한 정의와 기능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 연구에서는 각 시대별 주요 유서 편찬과 시대별 특징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유서의 역사적 분류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 분류 목록 저술서 중에서 유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분류를 조사하고, 시대별과 분류법별 등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유서의 현대적 분류에 대한 연구는 편집 또는 편찬측면과 내용의 배열 및 수록범위에 따른 분류를 살피고, 중국(CLC)과 한국(KDC) 및 일본(JDC)의 현대적 문헌분류법의 유서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 1.3 선행연구

유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져 왔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유서에 실린 문헌들에 대한 고찰과 유서 상의 분류항목에 대한 연구와 유목이나 자목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또한 유서의 기원이나 가치 및 각 시대별 유서의 편찬에 대한 고찰과 주요 유서들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와 관련된 연구로서는 유서의 기원 또는 연원에 대한 연구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일례로 그중 유서 연원 연구의 경우 유서의 ‘잡가설(雜家說)’, ‘이아설(爾雅說)’, ‘부설(賦說)’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특히 유서와 잡가의 차이를 살폈다.<sup>1)</sup>

그리고 유서의 분류 관련 연구의 경우 유전파(劉全波)는 목록학적 관점에서 유서의 분류와 전개에 대하여 다양하게 연구하였다.<sup>2)</sup> 그 외에 호현림(胡賢林)

1) 張晚霞, “類書的起源与歸部分類問題探析,” 『科技情報開發與經濟』 18(2008), 53-55.; 劉全波, “論類書的淵源,” 『圖書·文獻與交流』 1(2013), 78-84, 113.

2) 屈直敏, “從圖書目錄看中國古代類書的演進,” 『德州學院學報』 5(2004), 30-33.; 劉全波, “論類書的目録學演變,” 『圖書情報工作』 55:23(2011), 122-130.; 劉全波, “再論類書的目録學演變,” 『圖書館理論與實踐』 6(2013), 32-37.

또한 『중경신부(中經新簿)』, 『수서경적지(隋書經籍志)』, 『구당서경적지(舊唐書經籍志)』 및 『통지에문략(通志藝文略)』과 같은 목록류를 대상으로 한 유서의 분류 목록 상황을 살폈다.<sup>3)</sup>

한편 유서의 국내 전래에 대한 연구와 유서의 일본, 한국 및 베트남 등 한자문화권 전래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sup>4)</sup>

## 2. 연구의 배경

이 장에서는 유서에 명칭과 기능 및 시초와 수량을 살피고, 유서와 백과사전 그리고 유서와 총서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2.1 유서의 명칭과 기능

유서(類書)라는 명칭은 북송 구양순(歐陽詢) 등이 『신당서 예문지』를 편찬할 때, 자부에 ‘유서류(類書類)’를 두면서 정식으로 정사(正史)에 ‘유서’라는 명칭이 등장한 이래 오늘날까지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양순이 『신당서』를 편찬하기 전에 『송문총목(崇文總目)』 편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유서류’를 자목으로 삼았었다.<sup>5)</sup> 즉, 『송문총목』이 유서류를 자목으로 최초로 사용하였으나 정사인 『신당서 예문지』가 유서를 처음으로 사용한 저술로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유서의 경우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 『유서류소서(類書類小序)』에 의하면 ‘非經非史, 非子非集’라 하여 하나의 저술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유서는

3) 胡賢林, “論類書在書目分類中的演變,” 『圖書館理論與實踐』 4(2012), 102-105.

4) 金英善, “中國 類書의 韓國 傳來와 收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26(2003), 85-112. ; 劉全波, “論類書在東亞漢字文化圈的流傳,” 『敦煌學輯刊』 4(2011), 118-125.

5) 王堯臣, 王洙, 歐陽修 撰, 『崇文總目』. 文淵閣四庫全書本, 第674冊에 의하면 “類書類(以下原卷三十). 謹按此類以下『歐陽修集』无叙釋. 類書上, 共四十六部, 計一千六百五十卷. 類書下, 共五十一部, 計八百六十五卷(以下原卷三十一).”라는 기록이 보인다. ; 劉全波, “論類書的目錄學演變,” 『圖書情報工作』 55:23(2011), 122.

저술서이기보다는 각종 문헌 중의 자료를 집록하고 내용을 문류(門類)나 자운(字韻) 등에 의거하여 편집 배열하여 검색에 제공하는 일종의 참고정보원이기 때문이다. 부문유별로 관련자료를 대량으로 수집 편집하여 활용되어 온 유서의 주요 기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시성. 유서는 중요 저술의 원시자료를 대상으로 분류 편집하고 있다.

둘째, 자료성. 유서에 실린 자료들은 후대에 산일되거나 소실되어 더 이상 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유서에 중용 일실 자료가 실려 있어 후대까지 보존되기도 한다.

셋째, 축적성. 유서는 일반적으로 대량의 원시자료들을 축적하여 다양한 측면의 참고열람에 대비하는 것이다.

넷째, 검색성. 유서는 기본적으로 유사(類事)와 유문(類文) 외에 유자(類字), 유사(類詞), 유어(類語) 그리고 유서(類書)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검색에 매우 편리하게 제공되어 왔다.

비록 유목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수집 배열하여 논리적 승계관계 없이 기술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나 유서에 실린 자료의 원시성, 자료성 또는 전달성, 축적성, 검색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통적인 참고정보원이다.

## 2.2 유서의 시초와 수량

유서의 명칭은 송대부터이나 서적의 체제 측면으로 살펴보면 유사 성격의 문헌은 이전부터 있어 왔다. 학자에 따라 1) 서한 유안(劉安) 등의 『회남자(淮南子)』, 2) 서한 유향(劉向)의 『신서(新序)』와 『설원(說苑)』, 3) 『이아(爾雅)』, 4) 전국시대 말기 진의 상여불위(相呂不韋) 등의 『여씨춘추(呂氏春秋)』를 유서의 시초로 보기도 한다. 그중 중국 최고의 사의(詞義)를 해석한 훈고사전 『이아(爾雅)』의 경우 유자(類字)로 분류하고 검색의 편리성이라는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훈고(釋古), 석언(釋言), 석훈(釋訓) 등의 19류로 분류하여 글자를 해석하고 있다. 즉, 비록 『이아』는 유가의 경의(經義)를 해석한 사전(詞典)으로 절대적 기준으로 유

서는 아니나 부류로 분류하고 표목의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이후 유서의 편찬과 관련하여 편집체제의 참고가 되어 유서의 시초로 연구되기도 한다.<sup>6)</sup>

실제적 유서 편찬의 시작은 삼국시대 조위(曹魏) 때이며 최초의 유서는 황초(黃初) 원년(220)에 위(魏) 문제(文帝) 조비(曹丕)의 명령으로 왕상(王象), 유소(劉邵) 등이 편수한 『황람(皇覽)』이다. 이는 현재 전하고 있지 않으나 『삼국지위지(三國志魏志)』 『문제기(文帝紀)』에 기록이 있으며,<sup>7)</sup> 『위략(魏略)』의 기록에 의하면 이는 40여부로 분류하고 각 부 수십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오경군의(五經群書)를 근거로 하고 류로 분류하여 편을 삼아 황제 열람에 제공하였기에 『황람』이라 부른 것이다.

이후 유서는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편찬되었는데, 유서의 편찬 수량과 현전 수량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과 주장 또한 다양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sup>8)</sup>

<표 1> 유서의 편찬 수량과 현존 수량

저자명	서명	편찬수량	현존수량	비고
曹之在	中國古籍編纂史	600여종	200여종	
張滌華	類書流別 存佚第八	약 1,000종		• 劉全波의 통계
戴克瑜	類書的沿革 現存類書書目		263종	
庄芳榮	中國類書總目初稿	766종		• 총 842종 중 同書異名과 동일서 제외
吳楓	中國古典文獻學	600여종	200여종	• 육조-청말의 역대 예문지와 경적지에 실린 유서
趙含坤	中國類書	1600여종		• 보류 성격의 유서 125종 포함
全書編輯部	中國大百科全書	400여종		

6) 張琴, 魏曉虹, “古代類書的編纂歷程,” 『山西大學師範學院學報』 2(2000).  
<<http://www.literature.org.cn/Article.aspx?id=51220>>.

7) “諸儒撰集經傳, 隨類相從, 凡千余篇, 號曰『皇覽』.” 『魏文帝曹丕時“使者儒撰集經傳, 隨類相叢, 凡千余篇.”』

8) 劉全波, “類書考略,” 『山東圖書館學刊』 6(2013), 88-89, 91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하였다.

이상의 <표 1>과 같이 고대 유서의 총 편찬 수량과 현존 수량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유서에 대한 정의와 평가 및 여러 분류목록서 중의 유서 분류 등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 2.3 유서의 백과사전과 총서와의 차이

유서는 종종 백과사전 또는 총서와 비견되기도 하고 함께 같은 류로 분류되기도 하므로 유서의 백과사전과 총서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2.3.1 유서와 백과사전의 차이

유서는 백과전서(百科全書), 즉 백과사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는 백과사전을 중국에서 최초로 연구하고 소개한 이황영(李煌瀛)의 용어 번역에 그 이유가 있다.<sup>9)</sup> 즉, 그는 ‘encyclopedia’를 ‘백과류전(百科類典)’으로 번역하였다가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영향으로 ‘백과전서(百科全書)’로 다시 고쳐 번역하였던 것이다.

유서와 백과사전은 대량의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유별 또는 자별 등으로 분류 정리하고 있는 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의 Baidu와 한국의 『한국정신문화대백과사전』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유서와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편찬방식의 차이. 유서는 원시자료를 집성하여 자료성을 중시한다. 반면에 백과사전은 이미 있는 자료에 대하여 가공을 하는 것으로 기존에 지식을 가공, 정리 및 농축하여 편찬자 본인의 지식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 편집배열 방식의 차이. 유서는 원시자료를 편집 및 분류 배열하여 원시자료간의 내용의 관련성을 반영한다. 반면에 백과사전은 항목의 자모순 또는 어휘순으로 편집배열하며, 항목의 관계와 내용은 색인을 통하여 반영한다.

9) 劉辰, “叢書, 類書, 百科全書及其比較,” 『出版科學』 3(2001).

<<http://www.cbkx.com/2001-3/109.shtml>>.

셋째, 자료의 수집방법. 유서와 백과사전은 각 분야를 두루 망라한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자료의 수집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유서는 기존의 저술서를 원문의 순서에 따라 편집할 뿐 편찬자의 견해는 보통 첨가하지 않는다. 반면, 백과사전은 어떤 특정한 학문 분야나 각 조목에 대하여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을 통하여 과거의 사실과 현대의 새로운 지식을 아울러 제공하는 구실을 한다.

넷째, 내용의 구분. 유서는 일반적으로 문사(文史)자료를 중시하는 반면, 백과사전은 인류전체 지식의 반영을 주 기능으로 한다.

다섯째, 참고문헌. 유서는 일부분만이 권수(卷首)에 참고서목을 열거하며, 대부분 서명(편명) 또는 저자명만을 열거한다. 반면, 백과사전은 매항목 끝에 참고문헌에 대한 정확한 서지사항을 명기하고 있다.

여섯째, 내용의 갱신. 유서는 편찬이 완료된 이후에는 보충 또는 수정 작업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에 백과사전은 연속적인 갱신체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단위로 전면 수정하여 지식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일곱째, 색인체계. 유서에는 색인이 없으며, 색인 기능을 갖춘 것은 대부분 뒷사람에 의하여 편집, 추가된 것이다. 반면, 백과사전은 대개 색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종의 백과사전이라 정의되기도 하는 유서는 고대 동양 고유의 서적 편찬형식으로 현대의 백과사전과는 다르다.

### 2.3.2 유서와 총서의 차이

총서(叢書)는 총간(叢刊), 총각(叢刻), 회총각(匯刻書), 투서(套書) 등으로 불리우는데, 남송 말기에 편찬된 『유학경오(儒學警悟)』와 『백천학해(百川學海)』는 오늘날 공인하는 총서의 시조이다. 이후 군적(群籍)을 유편(類編)하고 편장(篇章)을 총괄하는 것이 총서편찬의 기본 체제로 이루어 진듯하다. 또한 종합적 총서가 많이 간행되면서 자료 집대성 성격의 유서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서와 총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sup>10)</sup>

10) 劉辰, “叢書, 類書, 百科全書及其比較,” 『出版科學』 3(2001).

<<http://www.cbkx.com/2001-3/109.shtml>>.

첫째, 자료의 분류. 유서는 대량의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유별이나 자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정리한 것이다. 반면, 총서는 원래 단행의 서적을 일정한 기준이나 체제 등에 따라 하나의 세트로 집대성하고 개괄적인 총서명으로 열람에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서명과 총서명. 유서는 고유의 서명을 쓰고 총서는 총서명을 쓴다. 총서는 하나의 총서명 아래에 여러 종류의 저작을 하나의 세트로 휘집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특정 용도를 위해서 또는 특정 대상의 독자를 위해서 일정 주제를 기준으로 묶어 편찬된다. 즉, 총서는 하나의 총서에 다수의 서적을 모은 것이다.

셋째, 편집의 차이. 유서와 총서의 명확한 공통점은 직접적으로 여러 서적에서 재료를 취하며, 자체적으로 편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총서는 특정 편찬체제가 없으며 단지 여러 종류의 저작을 함께 간행하는 것이며, 유서는 각종 서적 중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분류 편찬하는 것이다.

넷째, 개념의 차이. 유서의 유(類)는 분류편집의 의미이고, 총서의 총(叢)은 총괄, 취집(聚集) 및 많음의 의미이다.

이와 같이 총서는 자료 집대성이라는 성격으로 한때 유서로 분류되기도 하였으나 유서와는 다른 성격이다.

### 3. 유서의 편찬과 특징

삼국시대 이래 중국의 유서는 다양해지고 광범위하게 편찬되었다. 이장에서는 유서의 시대별 편찬을 살피고,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 3.1 유서의 편찬

유서가 처음 등장한 삼국시대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구분하여 주요 유서의 개괄적 편찬 상황은 <표 2>와 같다.

중국 유서의 편찬과 분류에 대한 연구

<표 2> 중국의 시대별 주요 유서의 편찬

시대	유서명	시기/편찬자	분류	비고
魏	皇覽	222년	40여류	• 三國志魏志 文帝記의 기록
北魏	帝王集要	北魏 道武帝 拓跋珪 때		• 政事歷史의 전문유서
南朝	壽光書苑	劉杳		
	類苑	502년 -		
	華林遍略	523년 徐勉		
北朝	科象	北朝元魏	270卷	
	修文殿御覽	572년	240類	• 칙찬 • 초명 玄洲苑御覽 • 개명 壽聖堂御覽
隋	長洲玉鏡	605-606년		• 관찬
	編珠	杜公瞻	14부류 현전5부류	• 4권중 1-2권 현전
唐	藝文類聚	歐陽詢 등 624년	100권 48부	• 관찬 • 奉勅撰 • 중국 현전의 최고의 유서
	文官詞林	許敬宗 등		• 관찬 • 奉勅撰
	初學記	徐堅	23部	• 관찬 • 奉勅撰
	北堂書抄	虞世南 撰	160권 19部	• 사찬 • 중국 4대 유서 • 당대 4대 유서 • 현전 최고 유서
	白孔六帖	白居易	100권	• 사찬 • 원명 經史類要, 事類集要 • 이명 唐宋白孔六帖, 白氏六帖事類集, 白氏經史事類, 白氏經史事類六帖
	文思博要	高士廉		• 관찬
	三教珠英	張宗昌 등		• 관찬
	瑤山玉彩	許敬宗 등		• 관찬
	平台秘略	王勃		• 사찬
	備舉文言	陸贄		

시대	유서명	시기/편찬자	분류	비고
宋	太平御覽	李昉 등	984 55門	• 太平類編, 太平編類 • 송대 최대 유서의 하나 • 송대 4부 유서
	太平廣記	李昉 등	978 93대류	• 송대 4부 유서
	冊府元龜	1005-1013년 王欽若, 楊億 등	31부	• 송대 4부 유서 • 조명 歷代君臣事蹟
	山堂考索	章如愚		• 사찬
	玉海	王應麟	200권	
	兩漢蒙求	劉班		• 사찬
	事林广記	陳元靚		• 사찬
元	韻府群玉	陰時夫		
	押韻淵海	嚴毅		
明	永樂大典	1404년		• 칙찬 • 조명 文獻集成
	類雋	鄭若庸		• 당송유서 집성 유서
	經濟類編	馮琦	100권	• 당송유서 집성 유서
	唐類涵	俞安期		• 당송유서 집성 유서
	韻府續編	包瑜	40권	• 원대 隸韻 계승 유서
	五車韻瑞	凌稚隆	160권	• 원대 隸韻 계승 유서
	山堂肆考	彭大翼	240권	• 종합 유서
	天中記	陳耀文	60권	• 종합 유서
	三才圖繪	王圻, 王思義	106권	• 전문 圖譜 유서
圖書編	王圻, 王思義 1607년		• 전문 圖譜 유서	
淸	古今圖書集成	陳夢雷	6개 彙編	• 관찬 종합 유서 •古今圖書匯編
	淵鑿類函	張英, 王士禎, 王愔 등	450권	• 문화유산 유서 • 御定淵鑑類函
	佩文韻府	陳廷敬		• 이문강사 유서
	韻府拾遺	張廷玉, 汪灝 등	106권	• 이문강사 유서
	子史精華	允祿, 吳襄 등	160권	• 사물기원유서
	格致鏡原	陳元龍	100권	• 사물기원유서
	事物原會	汪汲		• 사물기원유서
	壹事紀始	新化魏氏 1834년	22권	• 사물기원유서
月令粹編	秦嘉謨		• 세시검색 유서	

삼국시대에는 유서의 맹아기 및 탄생기, 수당시기는 유서의 발전기, 명청시기는 유서의 흥성 및 쇠퇴기로 분류된다. 각 시대별 유서 편찬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를 종합적으로 집대성하고 유별로 분류하고 있는 유서편찬의 시작은 삼국시대 조위 220년의 『황람』부터이다. 이후 후양과 북제 등의 군주들도 『황람』의 사례를 따라 문사(文士)를 모아 대형유서를 편찬케 하였다. 그중 유명한 것으로 양의 『수봉서원』과 『화림편략』 그리고 북제의 『수문정어람』 등이 있다. 다만 이들 초기의 옛 유서들은 현재 모두 전하지 않는다.

수당시기에는 대형의 관찬유서가 출현하였다. 수대에는 대표적으로 『장주옥경』과 『편주』가 있다. 당대에는 『예문유취』, 『문관사림』, 『초학기』의 관찬유서 3종과 『북당서초』와 『백공육첩』의 사찬유서 2종이 유명하다. 그중 『예문유취』, 『북당서초』, 『초학기』, 『백씨육첩』은 ‘당대사대유서’로 불리 운다. 한편, 수당시기에 사대부 문인들 간에는 개인적 유서편찬 또한 유행이었다. 그 예로 당대의 시인이었던 왕발의 『평대비략』, 백거이의 『백씨육첩』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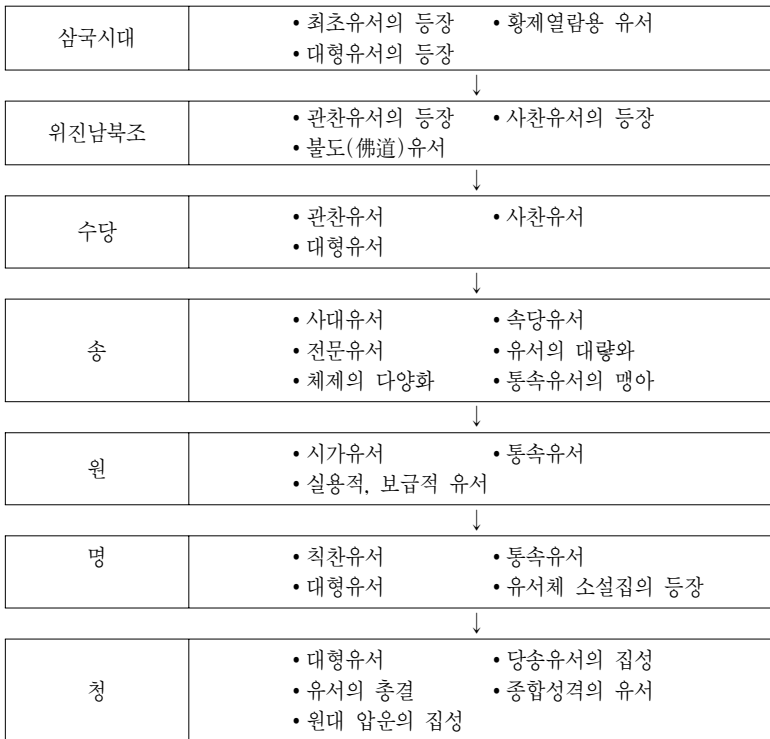
송대의 경우 대표적으로 ‘송대사대유서’로 불리우는 『태평어람』, 『태평광기』, 『문원영화』 및 『책부원구』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자료의 집대성, 소설의 집대성, 문장의 총집 및 시정 검색용의 유서로서 모두 현존하여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편, 각종의 전문성을 갖춘 유서도 등장하였는데, 과거 참고용 유서인 『옥해』와 향숙(鄉塾)의 학습 및 암송 제공용의 『양한몽구』, 백성들의 생활 고문용의 『사림광기』 등이 그러한 예이다. 한편, 원대에는 특히 시가기법(詩歌技法) 연구에 주력하였다. 즉, 시가 운율(韻律)의 압운(押韻) 연구 저술로 『운부군옥』과 『압운연해』 등이 비교적 유명하다.

명청 양대의 대형유서는 대부분 칙찬(敕撰)이다. 칙찬은 인력과 물력 및 재력이 모두 충분하기에 대량의 권질과 엄정한 편찬이 가능하였다. 명대에는 가장 유명한 유서이자 중국 최대의 유서인 『영락대전』이 칙찬되었으며, 청대에는 『고금도서집성』이 편찬되었다. 명대의 유서는 전대의 편집체제를 대부분 계승하고 있으며, 청대에는 이전까지 유서에 대한 총결의 역할을 하였다.

### 3.2 유서 편찬의 특징

#### 3.2.1 시대별 유서의 편찬의 특징

유서의 편찬은 삼국시대 위나라에서 시작하여 수당시대의 발전기와 송명시대의 번영기를 고쳐 명청시대의 총결기로 전개되었다 할 수 있다. 각 시대별 유서 편찬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유서의 시대별 편찬 특징

삼국시대에 등장한 최초의 유서인 『황람』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집대성하여 황제의 시정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 및 검색할 수 있도록 편찬된 것이다. 이후

당 전후로 유서 편찬의 가장 큰 특징은 당 전에는 ‘직서기사(直書其事)’의 유사(類事)로 분류 편집하고 있다면 당 이후에서 오대십육국까지는 ‘사문겸용(事文兼用)’의 유사(類事)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sup>11)</sup>

수당시대 편찬된 관찬 및 사찬의 유서의 내용과 용도는 각각 다르다. 우선 관찬유서의 경우 시정차감(施政借鑒) 용으로 황제에게 역사 고찰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편찬되었으며, 전고(典故)검색용으로 전문적으로 문장을 쓸 때 전고 검색을 위하여 편찬되었다. 일례로 『초학기』는 당 현종이 황자에게 문헌전고와 모범 문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황실황손의 문학에 대한 애호는 유서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사찬유서의 경우 황제의 각종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궁정시종을 위한 자료의 준비용으로 편찬하거나 유가경전 암송과 작문을 위한 과거 준비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편찬한 것이다. 『백씨경사사류』와 『비거문언』 등이 모두 과거 준비용으로 편찬된 유서이다.

송대의 유서는 권질이 방대하고 종류도 매우 많아졌으며 편집도 세밀해져서 우수한 유서들이 편찬되었다. 즉, 송대는 유서 전성기로서 사대유서, 속당유서, 전문유서 등과 같이 종류와 체제도 매우 다양하게 편찬되었다. 이는 송대 인쇄술의 발전과 광범위한 사용 및 국가의 장서 사업 발전에 주력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대의 경우 대체적으로 당송시절에 편찬이 이루어진 유서들을 대상으로 집대성하고 있다. 원대에 유행한 압운관련 시가기법 유서를 답습하여 편찬하고 있으며, 특히 도보만을 집대성하고 있는 전문적인 도보유서도 등장하였다. 또한 송대에 망아되고 원명 시대에 많이 출현된 통속유서는 명말청초에 가장 흥행하여 일용유서와 도덕고사 유서 및 오락성 통속유서로 구분되어 지기도 한다.<sup>12)</sup>

청대에 들어 유서의 체제가 정밀해지고 종류가 다양해지고 검색 또한 더욱 편리해졌다. 즉, 원명에 이은 이운예사(以韻隸事) 유서의 계승발전, 명언우구(名言偶句) 류의 유서의 편찬, 송대에 출현한 사물기원 유서의 총결, 세시 관련 전고를 종합적으로 집대성한 유서의 편찬 등 역대 유서 편찬에 대한 총결 성격을 띠는

11) 戴建國, “漢宋之間類書的嬗變,” 『圖書·情報·知識』 123(2008), 72-75.

12) 汪超, “論明代日用類書與史的傳播,” 『圖書與情報』 2(2010), 140.

등 전제적으로 문화유산을 집대성하였다.

종합적으로 삼국시대 이래 각 시대마다 공통적으로 관찬유서와 사찬유서가 등장하였으며, 종합적 성격의 유서와 전문적 유서 외에 과거 작문용 유서와 교육용 유서로 종합할 수 있다. 그 중 특히 관찬유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편찬된 것으로 정치적 성격의 유서라 할 수 있으며, 사찬유서의 경우 대부분은 과거 준비의 학습용 차원의 유서와 시가 작문 등의 문학적 차원의 유서이다.

이전 시대를 답습하기도 하고 이전 시대의 부족을 보충하기도 하며 시대를 이어 편찬되어 오던 유서는 청대 중엽이후 서양문화가 전입되고, 시대의 변화와 필요에 의하여 자연과학이 흥기됨에 따라 간단한 사류(事類)로 개괄함이 어려워지면서 유서의 편찬은 사그라지게 되었다.

### 3.2.2 사고전서 수록 유서의 특징

청대 초기에는 ‘사고전서관(四庫全書館)’을 두고 전국의 유서(遺書)를 구하고 당시까지의 고대의 학술정리에 힘썼으며, 『사고전서(四庫全書)』 중에 수록된 문헌의 경사자집 및 자목 별 총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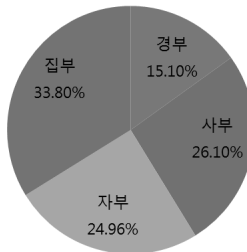
<표 3>과 <그림 2, 3, 4>와 같이 수록 문헌의 유목별 총수를 근거로 살펴본 『사고전서』 중 유서의 점유 비율은 9.3%이며, 유목별로 자부 중 유서의 점유 비율은 약 37.3%이다. 이는 『사고전서』의 총 44개 유목 중 하나로서 유서가 약 2.3%의 점유비율을 보인 것에 비하면 삼국시대 이래 유목대비 많은 양의 유서가 편찬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많은 유서가 시대가 흐르면서 유실 및 일실되었지만 청대까지 전해지거나 알려져 『사고전서』에 수록된 유서의 점유비율로 미루어 많은 양의 유서가 간행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당시 『사고전서』 편찬 기준을 고려 할 때 시대적으로 유서의 참고성과 자료성의 가치가 매우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13) 陳垣, 『陳垣學術論文集』(第二集)(北京: 中華書局), 26-34.; 劉全波, “論類書的目録學演變,” 『圖書情報工作』 55:23(2011), 127-128에서 재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재구성하였다. 참고로 唐元榮은 “歷代類書的形態,” 『阜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報)』 148(2012), 150에서 『사고전서총목』에 유서 282종 34,549권이 수록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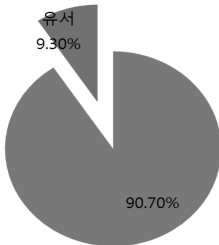
중국 유서의 편찬과 분류에 대한 연구

<표 3> 『사고전서(四庫全書)』 수록 문헌의 유목별 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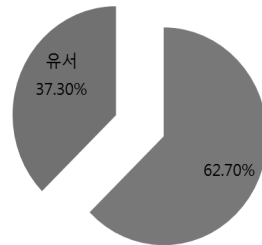
部	類	책수	部	類	책수	部	類	책수	部	類	책수	
經	易	1,080	史	正史	1,292	子	儒家	888	集	楚辭	29	
	書	371		編年	906		兵家	89		別集	7,509	
	詩	503		紀事本末	465		法家	40		總集	4,153	
	禮	1,216		別史	742		農家	114		詩文評	298	
	春秋	931		雜史	116		醫家	1,312		詞曲	275	
	孝經	15		詔令奏議	775		天文算法	343	계	12,264		
	五經總義	334		傳記	351		術數	286				
	四書	372		史鈔	36		藝術	603				
	樂	196		載記	97		譜畧	181				
	小學	464		時令	19		雜家	1,098				
계	5,482	地理	2,551	類書	3,375							
			職官	176	小說	368						
			政書	14,98	釋家	169						
			目畧	250	道家	189						
			史評	202	계	9,055						
			계	9,476	계	36,277						
			총									



<그림 2> 경사자집의 점유비율



<그림 3> 경사자집 중 유서의 점유비율



<그림 4> 자부 중 유서의 점유비율

#### 4. 유서의 분류 분석

유서에 대한 분류를 시대별 분류목록 저술서 상의 역사적 분류와 현대적 분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4.1 역사적 분류의 분석

중국의 유서에 대한 각 시대별로 이루어진 다양한 분류목록 저술서 상의 역사적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sup>14)</sup>

<표 4> 중국 유서의 역사적 분류

시대	서명	편찬자	분류법	분류항목	부	유서분류	비고
西晉	中經新簿	荀勗	4部	甲乙丙丁	丙部	황람부	• 史部
梁	七錄	阮孝緒	7大類			불명	
唐	隋書 經籍志	魏徵, 李延壽	4部	經史子集	子部	雜家類	
	古今書錄	毋煚	4部		子部	事類	• 유서류
五代	舊唐書 經籍志	劉昫	4部	甲部經錄 乙部史錄 丙部子錄 丁部集錄	子部	事類	• 유서류
宋	崇文總目	歐陽修	4部	經史子集	子部	類書類	
	新唐書 藝文志	歐陽修	4部	甲部經錄 乙部史錄 子部 丁部集錄	子部	類書類	
	郡齋讀書志	晁公武	4部	經史子集	子部	類書類	
	遂初堂書目	尤袤	4部	經史子集	子部	類書類	
	直齋書錄解題	陳振孫	4部	經史子集	子部	類書類	

14) 劉全波, “再論類書的目録學演變,” 『圖書館理論與實踐』 6(2013), 36 <表 諸書目中的類書稱謂及歸類表>와 張晚霞, “類書的起源與歸部分類問題探析,” 『科技情報開發與經濟』 18(2008), 54 <表 1 類書隸屬於子部>를 참조하고 내용을 추가 및 재정리하였다.

시대	서명	편찬자	분류법	분류항목	부	유서분류	비고
宋	通志 藝文略	鄭樵	12類			類書類	
	鄭氏書目	鄭寅	7部			類書類	
	宋史 藝文志	脫脫	4部	經史子集	子部	類書類	
	文獻通考	馬端臨	4部	經史子集	子部	類書類	
明	明史 藝文志	張廷玉 等	4部	經史子集	子部	類書類	
	文淵閣書目	楊士奇	39類			類書類	
	江東藏書目	陸深	13類			類書類	
	百川書志	高儒	4部		子部	類書類	
	國史經籍志	焦竑	4部		子部	類書類	
	世善堂藏書目錄	陳第	6大類			類編	
	二酉藏書山房書目	胡應麟	5類			類書類	
	紅雨樓書目	徐火勃	4部			滙書類	
	澹生堂藏書目	祁承燁	46類			類家類	
六家詩名物疏	馮復京				總集類		
清	四庫全書總目	紀昀	4部	經史子集	子部	類書類	
	絳云樓書目	錢謙益	73類			類書類	
	讀書敏求記	錢曾	44類			類家	
	孫氏祠堂書目	孫星衍	12類			類書類	
	書目答問	張之洞	7大類		子部	類書類	

이상의 <표 4>의 유서의 역사적 분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류의 시작. 중국의 문헌의 분류와 목록은 전한(前漢)의 유향(劉向)과 유흠(劉歆) 부자가 군서를 교감하여 편찬한 『별록(別錄)』과 『칠략(七略)』에서 시작되었으나 유서에 대한 분류는 서진의 순욱의 『중경신부』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둘째, 시대별 분류. 유서에 대한 각 시대별 분류의 전개를 살펴보면 삼국시대 순욱의 『중경신부』는 『황람』을 하나의 문으로 삼고 『사기(史記)』, 『구사(舊事)』, 『잡사(雜事)』와 함께 병부에 분류하고 있다. 이는 초기의 경우로서 유서의 칭호도 없고 자부로 분류되지 않고 사부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당대의 『수서경적지』는 자부 잡가류(雜家類)에 포함시켰으며, 오대 『구당서경적지』는 순개(循開) 원

년의 『고금서록(古今書錄)』의 체제를 따라 이미 유서를 잡가에서 분리하여 하나의 가(家)로서 ‘사가(事家)’라 칭하였다. 한편, 송대의 『신당서예문지』는 유서를 ‘유서류’로 분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전술하였듯이 『송문총목』에서 자목으로 처음으로 사용한 후이다. 원대의 『송사예문지』는 유서를 자부 ‘유사류’로 분류하였으며, 정서(政書)와 총서(叢書) 모두 유서로 분류하였다. 청대의 『명사예문지』도 유서를 자부 ‘유서류’로 분류하였으며, 총서를 유서로 여겼다. 『사고전서총목』 또한 유서를 자부 ‘유서류’로 분류하였으며, 모든 성씨 서적도 유서로 분류하였다 (<그림 5> 참조).

둘째, 분류법별 분류. 분류법별로 4부분류법과 7부분류법에서 유서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 졌으며, 그 외 유별분류에서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4부 분류법의 경우. 우선 초기에 사부(史部)로 유서를 분류하였고, 이어 자부 중 잡가류, 사류, 유서류 및 유사류로 분류하였다. 즉, 4부분류법은 유서를 사부로 분류하다가 자부로 분류 전개되었다.

2) 7부 분류법의 경우. 7부분류법의 경우도 4부분류법과 마찬가지로 유서류 또는 자부 이하 유서류로 분류하고 있다.

3) 유별 분류법의 경우. 유별분류법의 경우는 보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즉 39류, 13류, 6대류, 5류, 46류, 73류, 44류, 12류, 7대류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 모두 유서류나 유편, 유가류, 유류 등과 같이 유서에 대하여 하나의 류를 할당하여 분류하여 왔다.

셋째, 『사고전서총목』은 유서는 경사자집에 모두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다.<sup>15)</sup> 그러나 실제 『사고전서총목』은 자부에 유서류를 분류하고 있다.

넷째, 경사자집의 모든 분야에 유서를 분류한 경우도 있다.<sup>16)</sup> 명대의 임세근(林世勳)은 경사자집에 모두 유서가 있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오경통의(五經通義)』와 『구경보은(九經補韻)』은 경부유서로, 『통진(通典)』과 『회요(會要)』 등은 사부유서로, 『백공육첩』과 『초학기』 및 『예문유취』 등은 자부유서

15) 『四庫全書總目』 「類書類序」: “類書之書, 兼收四部, 而非經非史, 非子非集. 四部之內, 乃無類可歸.”

16) 劉全波, “再論類書的目象學演變,” 『圖書館理論與實踐』 6(2013), 35.

로 그리고 『문원영화』와 『당문수(唐文粹)』 및 『송문감(宋文鑒)』 등은 집부유서로 분류하였다. 또한 『병어조용(駢語雕龍)』의 『주병어조용서목(注駢語雕龍書目)』의 기록도 같은 경우이다.<sup>17)</sup> 청대의 장학성(章學誠, 1738-1801) 역시 유서를 분류할 때 어떤 전적은 사부, 자부, 집부 등으로 분류하였다.

종합적으로 유서는 역사적으로 서진의 『중경신부』에서 『황람』을 병부 즉 사부에 분류한 이후 자부에 분류되었다. 자부로의 분류 또한 유서는 먼저 잡가에 분류하였으며, 이후 사류, 유서류, 유사류에 분류하였다. 유별 분류에서도 대체로 유편이나 유가류 등과 같이 유서는 하나의 류에 할당되어 분류되었다.



<그림 5> 유서의 시대별 분류목록서 중의 분류

17) 경부유서: 『五經通義』, 『九經補韻』; 사부유서: 『通典』, 『續通典』, 『會要』, 『續會要』, 『通志略』, 『文獻通考』; 자부유서: 『白孔六帖』, 『初學記』, 『藝文類聚』, 『太平御覽』, 『太平廣記』, 『冊府元龜』, 『韻府群玉』, 『玉海』, 『事物淵源』, 『古今說海』, 『四十家小說』, 『山堂考索』, 『皇朝類苑』, 『合璧事類』, 『錦綉萬花谷』, 『漢雋』; 집부유서: 『文苑英華』, 『文章志』, 『文章錄』, 『寒門選』, 『唐文粹』, 『宋文鑒』, 『元文類』, 『歷代名臣文疏』, 『四六會編』, 『徐諧賦苑』等.

## 4.2 현대적 분류의 분석

### 4.2.1 현대의 유서 분류

현대의 유서에 대한 분류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며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현대 유서 분류의 종류

기준		구분		유서
편집 및 편찬	편집방법	유별	종합	藝文類聚, 太平御覽, 玉海, 淵鑑類函 등
			선별	太平御覽, 小名錄, 職官分記 등
		자별	끝자	韻海鏡源, 佩文韻府 등
			첫자	駢字類編 등
		수치편집	小學紺珠 등	
	편집체제	종합검색	皇覽 등	
		종합검색+시문수집	藝文類聚 등	
		사조전고	佩文韻府 등	
		운어편성	幼學故事琮林 등	
		도표도문	三才圖會, 圖書編 등	
	편찬주체	관찬	藝文類聚, 太平御覽 등	
		사찬	北堂書抄, 白孔六帖 등	
서방(書坊)		古今合璧事類備要 등		
내용 배열	의(義)계		대부분의 유서	
	형(形)계		駢字類編 등	
	음(音)계		韻府群玉, 佩文韻府 등	
수록범위	종합	北堂書鈔, 藝文類聚, 初學記, 白孔六帖, 太平御覽, 山常考索, 玉海, 永樂大典, 淵鑑類函, 古今圖書集成, 皇覽, 修文殿御覽, 錦綉萬花谷, 古今事文類聚, 記纂淵海, 事林廣記, 古今合璧事類備要, 天中記, 山堂肆考, 唐類函, 潛確居類書 등		
	전문	冊府元龜, 三才圖會, 圖書編, 格致鏡原, 佩文韻府, 子史精華, 事類, 賦事物紀原, 歲時廣記, 小學紺珠, 群書類編故事, 群書通要, 月令廣記, 萬姓統譜, 喻林, 經濟類編, 駢字類編, 分類字錦, 稱謂彙, 古事比, 讀書紀數略, 事物紀原補, 事物原會, 月令粹編, 事類賦統編, 壹是紀始 등		

우선 현대에 있어서 유서는 편집 또는 편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첫째, 편집방법별. 유서는 편집의 방법에 따라 크게 유별(類別) 또는 자별(字別)로 분류, 편찬하여 검색하기에 편리하게 만든 정보원이다. 유별로 분류한 유서의 경우 각 유(類)를 모두 수록한 유서와 어떤 특정한 유만을 수록한 유서로 분류된다. 자별로 분류한 유서의 경우 어구의 끝자의 운(韻)에 의하여 배열한 유서와 어구의 첫자의 운에 의하여 배열한 유서가 있다. 한편, 수치 편집 유서는 오로지 숫자를 강으로 사실(事實)을 집대성한 것으로 『소학감주(小學紺珠)』가 그 예이며, 다만 이런 종류는 많지 않다.

둘째, 편집체제별. 유서의 편집 체제별로 종합 검색용, 종합 검색 및 시문의 수집용, 사조전고(辭藻典故)용, 운어(韻語)의 편성용 그리고 도표와 도문의 집대성과 같은 유형이 있다.

셋째, 편찬주체별. 편찬의 주체별로는 관찬과 사찬 및 서방(書坊)의 경우로 분류된다. 관찬 유서는 국가의 힘으로 인력과 물력을 집중하여 대규모의 유서를 편찬한 경우이며, 사찬유서는 문인이나 학자가 시와 문장을 짓기 위하여 자료를 축적하여 개인이 편인하는 경우이다. 한편, 서방(書坊)유서는 인쇄가 발달하고 각판(刻板)이 성행하면서 서방에서도 유서를 편집하였으며,<sup>18)</sup> 대표적으로 송대의 『고금합벽사류비요(古今合璧事類備要)』와 통속유서 등이 있다.

한편, 유서의 내용 배열방식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의계(義系) 유서. 이는 내용별로 분류 배열한 것으로 천문, 지리, 인사류 등이 있다. 각 계마다 약간의 소류가 있다. 예로 천문은 일, 월, 성, 시 등이 있으며, 시는 또 춘, 하, 추, 동 등이 있다. 고대의 유서는 대부분에 여기에 속한다.

2) 형계(形系) 유서. 이는 자형(字形)으로 분류한 것으로 2개의 글자로 하나의 사어(詞語 단어)를 조성하여 단어에 따라 그 위글자를 동일자의 유형 중에 귀입시키는 것이다. 이런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시문편목은 청대의 『병자유편』이 있다. 그 기능은 음형유서와 비슷하다.

18) 戚志芬, “中國文化小百科《中國的類書、政書和叢書》”.

<<http://www.eywedu.com.cn/wh031/>>.

3) 음계(音系) 유서. 문헌 중에서 발췌한 2-4자의 짧은 글자로서 마지막 한 개 글자의 운을 어떤 운에 편입시키는 분류방법이다. 주로 사전의 자료출처 찾기 용도에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유서는 수집하고 있는 자료의 범위별에 따라 각종 자료를 모아 각 류를 종합한 유서와 오로지 한 가지 류의 자료를 대상으로 수집한 것 전문적 유서가 있다. 후자의 경우 유서의 별본(別體)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 4.2.2 현대 문헌분류법의 분류

유서에 대한 현대의 중국과 한국 및 일본의 문헌분류법에 의한 분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표 6 참조>).

첫째, 중국의 CLC 5(2010)는 비십진분류법이다. 유서의 경우 Z 종합성도서 중 Z2 백과전서, 유서에 분류된다. Z22는 중국의 백과전서와 유서의 분류항목이며, 현대의 백과전서나 유서는 별도로 Z27에 분류하고 있다. 일례로 『예문유취』의 경우 Z22 중국백과전서 중 당대(唐代)인 ‘Z221’에 분류되고 있다.

둘째, 일본의 NDC 신정9판(1995)의 경우 십진분류법이다. 유서는 000 총기 중 032 백과사전에 분류 된다. 일례로 『예문유취』의 경우 총기의 백과사전으로 ‘032.2: 中國語’와 같이 분류되고 있다.

셋째, 한국의 KDC 6(2013)의 경우 십진분류법이다. 유서는 000 총류 중 030 백과사전에 분류되고 한국어(031), 중국어(032), 일본어(033)와 같이 국가별로 구분된다. 일례로 『예문유취』의 경우 ‘031.2’와 같이 분류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유서에 대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현대 문헌분류법에서는 모두 백과사전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현대의 백과전서와 유서의 분류 항목을 별도로 두고 있어 전통적인 백과전서와 현대의 백과전서와 유서를 분리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인 문헌과 현대문헌을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전술하였듯이 유서와 현대적 백과사전은 분명히 성격이 다른 정보원으로서 현대에도 유용한 유서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고려할 때 별도의 분류항목

의 구축 또는 현대적 백과사전과는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6> 현대 문헌분류법의 유서 분류

국가	분류법	유목	강목/세목	비고
중국	CLC	A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 모택동사상·등소평이론 B 철학·종교 C 사회과학 총론 D 정치·법률, E군사, 경제 G 문화·과학·교육·체육 H 언어·문자 I 문학, J 예술 K 역사·지리 N 자연과학 총론 O 수리과학과 화학 P 천문학·지구과학 Q 생물과학 R 의약·위생 S 농업과학, T 공업기술 U 교통운수, V 항공·항천 X 환경과학·안전과학 Z 종합성도서	Z1 총서 Z2 백과전서·유서 Z3 사진 Z4 논문집·전지·선집·잡지 Z5 연감·연간 Z6 정기간행물·연속간행물 Z8 도서목록·초록·색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Z22 중국의 백과전서·유서</li> <li>• Z27 현대의 백과전서·유서</li> </ul>
일본	JDC	000 총기 100 철학 200 역사 300 사회과학 400 자연과학 500 기술·공학 600 산업 700 예술·미술 800 언어 900 문학	010 도서관·도서관학 011 도서관 정책·도서관 재무 행정 020 도서·서지학 021 저작편집 030 백과사전 040 일반논문집·일반강연집 050 순차간행물 060 단체 070 저널리듬·신문 080 총서·전집·선집 090 귀중서·향토 자료·그 외의 특별콜렉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하 국가별 구분</li> </ul>
한국	KDC	000 총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과학 400 자연과학 500 기술과학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학 900 역사	010 도서학·서지학 020 도서관학 및 정보과학 030 백과사전 040 일반논문집 050 일반연속간행물 060 일반학회·단체 연구조사기관 070 신문 잡지 080 일반전집 총서 090 향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하 국가별 구분</li> </ul>

## 5. 결 론

유서는 각종 전적을 대상으로 관련 원시자료를 집록하고 유별 또는 자별 등으로 편집한 전통적 참고정보원이다. 이 연구는 중국 유서의 편찬과 분류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우선 유서의 명칭과 기능, 시초와 수량 외에 백과사전과 총서의 유서와의 차이를 살폈다. 편찬과 분류에 대한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서의 편찬 특징 고찰 결과 최초의 유서는 삼국시대의 『황람(皇覽)』이며, 이는 황제의 시정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 및 검색할 수 있도록 편찬된 것이다. 수당시대에는 관찬 및 사찬의 유서가 다양하게 등장하였으며, 송대의 유서는 권질이 방대하고 종류도 매우 많아졌으며 편집도 세밀해져서 우수한 유서들이 편찬되었다. 명대의 경우 대체적으로 당송시절에 편찬이 이루어진 유서들을 대상으로 집대성하고 있다. 청대에 들어 유서의 체제가 정밀해지고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량이 더욱 많아졌으며 검색 또한 더욱 편리해졌으며, 역대 유서 편찬의 총결을 이루어 문화유산 집대성하였다. 그러나 청대 중엽이후 서양문화가 전입되고, 시대의 변화와 필요에 의하여 간단한 사류(事類)로 개괄함이 어려워지면서 유서의 편찬 기풍은 사그러지게 되었다.

둘째 유서의 분류는 역사적 분류와 현대적 분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유서의 역사적 분류는 서진의 『중경신부』에서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4부분류법과 7부분류법에서의 유서에 대한 분류 외에 유별분류에서도 유서는 분류되고 있다. 4부분류법의 경우 초기에 사부(史部)로 분류 이후 자부 중 잡가류, 사류, 유서류 및 유사류로 분류되었다. 7부분류법의 경우 유서류 또는 자부 이하 유서류로 분류되었다. 유별 분류법의 경우 유서류나 유편, 유가류, 유류 등과 같이 유서에 대하여 하나의 류를 할당하여 분류하였다. 한편,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은 유서는 경사자집에 모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명대의 임세근(林世勤)과 청대의 장학성(章學誠) 등은 유서를 사부, 자부, 집부 등에 모두 분류하였다.

현대의 유서의 분류는 편집 및 편찬에 따라 편집방법별(유별(類別), 자별(字別), 수치유서), 편집체제별(종합 검색용, 종합 검색 및 시문의 수집용, 사조전고

(辭藻典故)용, 운어(韻語)의 편성용, 도표와 도문의 집대성), 편찬주체별(관찬, 사찬, 서방(書坊))로 분류된다. 내용 배열방식의 경우 의계(義系)와 형계(形系) 및 음계(音系)의 유서로 분류된다. 그리고 유서는 수집하고 있는 자료의 범위에 따라 종합유서와 전문유서로 분류된다.

한편 유서에 대한 현대의 분류법에 의한 분류의 경우 중국의 CCL 5(2010)의 경우 'Z 종합성도서' 중 현대 백과사전과 별도로 'Z22 중국백과사전'에 분류하고, 일본의 NDC 신정9판(1995)의 경우 '000 총기' 중 '030 백과사전'에 분류하며, 한국의 KDC 6(2013)의 경우 역시 '000 총류' 중 '030 백과사전'에 분류하고 있다. 유서와 백과사전은 분명히 다른 정보원으로서 현대의 분류법상에 백과사전으로 분류함에는 일정의 무리가 있으므로 별도의 분류항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고대 유서의 편집 배열의 방법이 과학적이지는 않으나 수록되어 있는 각종 원시자료의 사료적 가치와 시문 등의 문학적 가치 및 진귀한 전적의 보존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유서의 1) 고적의 교감, 2) 사서(史書)의 교보(校補), 3) 산일된 전적의 유문(遺文) 집록, 4) 사실(史實)의 조사 고찰, 5) 참고문헌의 수집, 6) 시사문장(詩詞文章) 전고(典故)의 검색 등의 기능은 현대에 더욱 유효하며, 유용한 검색도구이자 참고정보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Baidu(百度). <<http://www.baidu.com>>.

CLC. <<http://www.zju.edu.cn/jzus/download/clc.pdf>>.

NDC. <<http://www.ndl.go.jp/jp/library/data/pdf/NDCbunruikijun2010.pdf>>.

國際藝術圖庫. <<http://ourartnet.com/index.htm>>.

屈直敏. “從圖書目錄看中國古代類書的演進.” 『德州學院學報』 5(2004). 30-33.

金英善. “中國類書의 韓國傳來와 收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26(2003). 85-112.

- 唐元榮。“歷代類書的形態。”『阜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報)』148(2012). 150-153.
- 戴建國。“漢宋之間類書的嬗變。”『圖書·情報·知識』123(2008). 72-75, 56.  
『四庫全書』. <<http://www.sikuquanshu.com/>>.
- 劉全波。“論類書在東亞漢字文化圈的流傳。”『敦煌學輯刊』4(2011). 118-125.
- 劉全波。“論類書的目録學演變。”『圖書情報工作』55:23(2011). 122-130.
- 劉全波。“論類書的淵源。”『圖書·文獻與交流』1(2013). 78-84, 113.
- 劉全波。“類書考略。”『山東圖書館學刊』6(2013). 88-92, 104.
- 劉全波。“再論類書的目録學演變。”『圖書館理論與實踐』6(2013). 32-37.
- 劉 辰。“叢書, 類書, 百科全書及其比較。”『出版科學』3(2001).  
<<http://www.cbkx.com/2001-3/109.shtml>>.
- 王 鋒。“淺議類書的發展演變。”『黑龍江科技信息』35(2011). 260, 172.
- 汪 超。“論明代日用類書與史的傳播。”『圖書與情報』2(2010). 140-144.
- 張琴, 魏曉虹。“古代類書的編纂歷程。”『山西大學師範學院學報』2(2000).  
<<http://www.literature.org.cn/Article.aspx?id=51220>>.
- 張晚霞。“類書的起源與歸部分類問題探析。”『科技情報開發與經濟』18(2008).  
53-55.
- 『中國大百科全書』智慧藏. <<http://edu1.wordpedia.com/Cpedia/>>.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ctext.org/zh/>>.
- 戚志芬。“中國文化小百科《中國的類書·政書和叢書》。”  
<<http://www.eywedu.com.cn/wh031/>>.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1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胡賢林。“論類書在書目分類中的演變。”『圖書館理論與實踐』4(2012). 102-105.